♣ 관상조류(其 3)

관상조류사육각론

방 예 식
<한국 관상조류 연구원장>

관상조류 사육의 고상한 향취(向趣)와 가치관, 국내사육분포의 현황과 거래가격 그리고 종금선택의 요령(혈통, 조령, 건강, 외모과 번식방법(금사, 사료, 관리, 부화, 육추)등의 기초상식에 관한 부문을 전호에서 대강 고찰하여 보았다.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관해서는 사육을 원하는 각자의 직접 질의와 방문 면접때 해답과 지도에 응하기로 하고 지면관계상 현재 분포되어 있는 30여종의 조류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널리 애완 사육되고 있으며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표적인 몇가지를 골라 그 자태와 습성등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1. 금계(金鷄) (Golden Pheasent)

본종은 중국의 서남부 사천성(四川省) 호북성(湖北省)의 서부하류 지방을 기점으로 표고는 900~1,300m의 산악지대에 서식한다. 본종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위적 사육의 역사도 꿩과(雉科)에서는 으뜸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육되기는 불과 10년 미만이다. 형태는 대형조류중에서 그 수가 제일 많고 국내의 기후풍토에 잘 순화되여 그 번식과 사육방법도 완전 확정되어 있다. 금계는 이름 그대로 금속적인 금색(바탕은 홍색)을 가지고 있어서 조류중에서는 지극히 미조라 칭찬할 정도이며 화초기생이라고 까지 별명이 붙은 아름답고 선명한 새중의 명기(名妓)이다. 세계 각국에 파급되어 그 혈통을 잇는 동안 인간에 의해 순화, 순치(馴致)되어 거의 가금화 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잡종의 증가도 막을수 없게된 현상이다. 그래서 각국의

<금 계>

연구가들은 순종(純種)을 최대한으로 증가 보급시키고 잡종을 전세계에서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미술적으로 자수도 되고 공예품으로 삽화(揷畵)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깃털은 모자의 장식공예품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황금계(黃金鷄) (Yellow Golden Pheasent)

본 종은 야생조류가 아니고 금계에서 20여년전 돌연변이(突然變異)를 하여 현재는 품종이 고정된 고귀한 조류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사육사(飼育史)는 불과 4~5년에 불과하다. 황금계는 다른 조류에 비해 번식은 쉬운편이나 사육이 약간 까다롭다고 보겠다. 사육이나

관리는 금계와 비슷하나 희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高價)인 편이다. 황금계는 인위적 작품이라 금계와 같이 난폭하지는 않고 아름답고 고상하기 이를데 없는 색소미(황금색 바탕)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의 애조가가 극찬하여 마지않는 희귀종의 하나이다. 20년밖에 안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종조가 많지를 않고 설사 일본, 대만, 불란서 등지를 경유하여 다소 수입되었지만 운반도중의 스트레스와 급변한 환경과 기후 사료등에 겹쳐서 많이 낙조(落鳥)가 되었다.

그 점으로 본종의 구입은 가격문제를 고사하고 반드시 국내에서 번식된 후손으로 탈색(脫色)이 되지않은 순종을 입수하는 것이 제일가는 상책이라 하겠다. 본 종의 바탕색은 어디까지나 순금황색임으로 농도(濃度)보전을 위하여 여름철에 직사광선은 금물이다. 또 깃갈이 시기에는 짙은 농도의 황색소와 깃털의 발생을 촉진시켜야 한다. 종조를 구할때 깃털색갈이 짙은 순금황색이 아니고 희무구레한

<황금계>

황색은 대단히 좋지않으니 어미새의 색갈과 혈통을 존중하여 골라야 한다.

3. 은계(銀鷄) (Lady Amherst Pheasent)

본종은 중국 티벧트동부 사천성의 서부로 뻗어있는 산악지대와 운남성의 동남부와 서부에 표고 2,100~3,300m의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본종은 금계와 매우 가까운 종류로서 금계보다 체형이 크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새이다. 티벧트의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2,000m 이하에는 갈색의 산색갈과 황갈색의 바위색갈에 가깝도록 금계가 보호색을 지녔다면 은계는 그이상의 설령(雪嶺)을 중심으로 하여 눈빛에 보호될수 있도록 흰색을 바탕으로 한 기본색갈을 지녔다고 보겠다. 본종은 금계의 적색이 바탕이 아니고 순백색이 바탕이며 그 색갈이 대단히 침착하고 우아하기 때문에 일면 귀부인 꿩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약 200여년전 유럽의 애조가와 귀부인들이 사육을 시작한 것이 인간에게 선을 보였으며 영국의 빅토리아여왕이 가장 사랑하든 애완조류중의 하나로서 인정받아 그 후부터 영국의 귀족들과 고관들의 정원에서 극진한 사랑과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그 번식법이 거의 확정이되어 애조가의 손에서 잘 번식되고 있다. 높은 고산지대에 삶으로 추위에 대한 저항력도 금계보다 강하고 가금의 역사가 짧기때문에 야생의 본능도 금계보다 강하다. 은계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독점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집단적인 인공번식에 주력하여 외화획득의 일환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앞을 다투고 있다. 본종의 번식법이 확정되기 이전에 금계와 마구 교접시켜 지금은 금계와 마찬가지로 그장종(금은계)이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체격도 다소 금계의 혈통을 받아 감소된 느낌이다. 현재는 순종의 후손을 증식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고 순종과 잡종의 가격도 천양지차로 많은 격차가 있음으로 초보자는 구입시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순종선택에 전문가의 지도와 판별을 받아야 될 것 이다.

4. 백한(白鷳) (Silver Pheasen)

본종은 인도지나에 가까운 중국의 남부와 북에는 호강성까지 분포되고 있다. 인간에게 사육된 역사는 500년정도라고 옛 중국의 기록에 나와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그 깃털은 장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100년전부터 사육되어

왔으며 지금은 전세계에서 애완사육되고 있는 종류이다. 본종은 꿩류중에서 가장 남성적인 새이다. 꿩류중의 기본조류라 하여 금계, 황금계, 은계, 백한을 들수 있겠다. 그 아름다운 골체(V형)무늬는 배면에 파상문(波狀紋)이 되어 있어 백색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해 주고 있으며 머리위나 흉복부는 자색을 띤 흑색으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아마 큼직한 체구에 큼직한 꼬리는 정말로 훌륭한 조화라 하겠다. 거기에 더하여 긴 도가머리는 자색을 띤 검정색이어서 거구의 장군이 검은 갑옷을 입고 흰 마후라를 등뒤에 축느리고서 자색의 구슬로 장식한 붉은 투구를 쓴 것같아 더 한층 애완의 가치를 돋구워준다. 잡종은 별로 없는 편이나 종금을 구할때에는 종조 어미새의 자태와 꼬리의 길이를 염두에두고 선택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5. 산계(山鷄) (Swinhos Phea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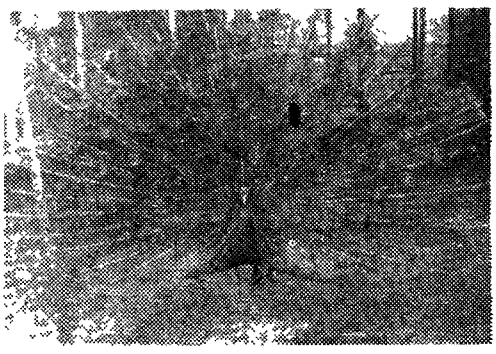
본종은 대만이 고유한 텃새이다. 대만전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100~200m의 우거진 산림에 서식하며 수명은 5~15년이다. 본종의 형태는 백한을 다소 닮았으나 숫컷은 청색을 바탕으로 하여 머리의 관우와 어깨사이의 부분 그리고 중앙 꼬리깃털은 대표적인 순백색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색적인 감정을 풍기면서 선명한 기분이 느껴지는 새이다.

본종은 용기와 용맹이 있어보이면서 특히 얼굴의 붉은 피부는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하여 온 얼굴을 덮은 것이란 위엄이 넘쳐흐르면서 산뜻한 감촉을 준다. 아름다우면서 위엄이 있어 보이지만 성질이 다소 거친편이며 야생적인 본능이 농후한 새인지라 다른 혈연과는 우위다툼을 하여 생사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본종은 가금의 역사가 짧고 폭군적인 신경을 가진 새다. 그 폭군적인 신경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금사의 천정이나 벽에 부딪쳐 뇌진탕이나 부상을 입는 때가 많으니 어릴때부터 사람과 친숙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6. 공작류(孔雀類) (Peafow)

(1) 청공작(青孔雀)

인도, 실론, 인도지나, 태국, 말레이지아에서 식하는 연대조(然帶鳥)이다 자연서식지에서는 이동성이 없고 항상 같은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 같은 물을먹고 같은 지역에서 모이를 먹으면서 떨어지지 않을려는 습성이있다. 본종의 오색찬란한 청색의 염미한 깃털색갈은 밀림의 대초원과 돌 조화를 이룬 보호색으로 되어있어 각종 맹수들의 기습을 피할수 있게 되어있다. 표고 1,000m이하의 낮은 온난한 곳의 늪지대로 돌아다니는데 번식기가 아닐때는 인간근처의 밭이나 혹은 우거진 깊은 숲속 거수림사이에서 혼자 살기를 좋아한다. 공작은 조류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멋이담겨진 새이며 태초에 신이 땅위에 내려놓은 단 하나의 신작(神作)이라하겠다. 그럼으로 인류와의 관계가 오래되고 인간에 의거한 사육도 3,000년이전이라고 문헌에 전하여 지고 있고 특히 머리 목부분 금속적인 청색이고 아랫배는 갈색 날개깃은 황토색이다 호화찬란한 꼬리의 덮깃은 250개의 우축(羽軸)으로 부채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생후 2년째부터 나타나지만 충분히 성숙하는 것은 4~5년부터이다. 이쯤되면 수컷의 장식깃은 가장 길게자라 그 순라함은 참으로 미의 극치를 이루어 사육자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한다. 1.5m나 되는 꼬리를 커다란 부채형으로 활짝편 모습 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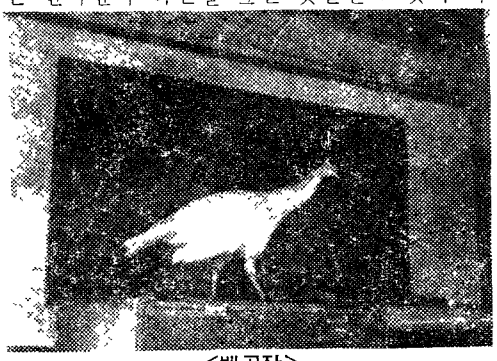


<청공작>

에 더하여 250개나 되는 깃대에 치렁치렁 늘어진 부드러운 털끝이 나부껴 파란 옥색의 금속광택이 눈부신다. 또 깃끝은 소위 진주무늬라 부르는 둥근 보주(寶珠)를 이루워 초록 자주 남색 청동 황금등 5색도 영롱한 150개나 되는 둥근 5색무늬가 큰 부채형 전면에 가득히 펼쳐져 찬란하게 빛나는 광경은 참으로 이세상의 것은 아닌 성싶게 느껴진다.

(2) 백공작(白孔雀)

본종은 이름그대로 전신이 순백색으로 되어 있고 부리와 발부분의 색갈은 살색이다 체격은 청공작과 같으나 꼬리깃이나 장식깃이 더욱 훌륭하고 꼬리위 덧깃이 1.5m나되고 장식깃도 청공작이나 진공작처럼 부채형으로 활짝 편 모식이란 순백색의 깃대에 세련되고 고조된 연회색의 둥근 무늬보주는 천애(天哀)와 비길바 아닐것 같이 황홀하다. 거기에 더하여 200여대나 되는 흰깃대를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며 양발로 춤추며 노래하며 암컷을 유혹하는 디스플레이의 모습이란 마치 백화송이가 뿌려지는 것 같으면서 햇빛에 반사되는 광경은 흰비단이 하늘을 덮는 것같은 그멋과 희열



<백공작>

감이란 느껴보지 않고서는 형용할수가 없겠다. 백공작은 야생조류가 아니고 금계에서 황금계가 작출됐듯이 청공작 또는 진공작에서 백변형(白變型)된 돌풍여 변조이다 그럼으로 종조가 희귀하고 청공작보다 훨씬 고가이다.

(3) 진공작(眞孔雀)

본종은 청백공작에 비하여 더욱 열대종(熱帶種)이며 공작류중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꿩과 조류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답고 품위 높은 새이다 청공작보다. 전신의 색채가 풍부하고 청색대신 녹색이 바탕으로 이루워진 다진털색갈이므로 진공작이라 부른다. 머리위의 관우는 청공작이 부채 끝인 대신에 진공작은 가늘고 긴 깃가지가 방울모양으로 되어 있고 눈밑의 나출부에는 황색의 육질부가 있다. 이점이 진공작의 특징이다. 진공작은 청공작보다 체격이 크고 훌륭하지만 근래에는 크고 아름다운 진공작은 적고 청공작이 인자가 섞여있는 것이 허다하다. 그러나 진공작에는 아종(亞種)이 있어 버마종 인도지나종 쟈바종등 3종이 있다. 이들 아종도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하다. 본종은 국내에 몇쌍안되고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진가(眞假)를 가리는데 신중을 기해야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4) 원앙새(Mandarin Duck)

본종은 만주 우스리 한국 일본 중국본토의 동부와 대만에 머치는 아세아 동부이며 겨울철에는 한국에 내려오고 바다에는 없는 담수조(淡水鳥)이다 이새는 넓은 금사에 방사하면 번식에 성공하고 관상용으로는 수조(水鳥)의 왕이다. 숫놈의 양체측(兩體側)의 은항우(銀杏羽) 또는 사우(思羽)라고 하는 아름다운 색채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아름답다. 우리나라의 보호조로서 인공사육으로 많은 번식이 기대되며 부화 육추 번식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다음호부터는 ①순종과 잡종의 감별법 ②종조의 분양방법과 가격 ③수익을 고려한 종금외 선택법 ④부화 육추 번식의 비결등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 월간양계 편집실에는 양계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들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 월간양계 6개월분 1,200원 / 1년분 2,000원
◆ 월간양계합본(8, 9, 10) : 권당 2,000원
◆ 양계경영일지 : 권당 150원
◆ 최신가금요론 : 권당 2,000원

연락처 : 서울 중구 양동 44~28
대체구좌 : 519272번